

이화여성신학소식



발행인 : 백은미 / 발행처 :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여성신학연구소 / 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120-750)

전화 : 3277-3278~9 / 팩스 : 312-2062 / http://home.ewha.ac.kr/eiwt / E-mail : E600067@ewha.ac.kr

.....
권 두 언
.....

아브라함의 딸

정용석

기독교학과 교수

1900년대 초 대표적 문인이었던 춘원 이광수는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한국의 근대화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 이광수는 1917년에 발표한 “야소교의 조선에 준 은혜”라는 글에서 기독교가 공헌한 바를 여덟 가지로 정리한다: “서양사상의 유입, 도덕의 진흥, 교육의 보급, 여자의 지위 향상, 조혼제도 폐지, 한글 보급, 사상 자극, 개인의식의 자각”이다. 그중에서 ‘여자의 지위 향상’에 대해서 이광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여자의 지위를 높임이외다. 남존여비는 동양윤리의 전과요, 특히 조선에서 여자는 견마나 다름없었소. 그네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없었고, 자기의 인격을 주장한다든가 독립한 생활을 영위함은 몽상도 못하였소. 그런데 같이 회당에 출석하여 같이 찬송을 부르게 되매, 상제의 앞에 평등한 자녀라는 사상을 얻게 됨은 야소교의 덕이외다.... 최초의 여학교도 야소교회의 여학교여니와, 최초의 여학생도 야소교회의 여학생이외다.”

그리피스(W. E. Griffis)는 *Corea: The Hermit Nation*, 『은둔국 한국』이라는 책에서 한국 여성의 낮은 위상에 대해서 말한다: “한국 여성들에겐 도덕적 생활이 없다. 여성은 쾌락이나 노동의 도구일 뿐, 남성과 동등한 존재나 동반자로 여겨지지 않는다. 여성에겐 이름이 없다. 어렸을 때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부르는 별명이 있으나 처녀가 되면서부터는 부모가 아니면 그 별명도 부르지 않고, 그저 아무개 ‘딸’ 혹은 아무개 ‘누이’로 불린다. 결혼 후에는 아예 이름이 묻혀버린다. 철저히 이름 없는 존재가 된다.... 시집간 고을이나 집안 이름을 딴 명칭이 붙여지고, 아기를 낳으면 아무개 ‘어미’가 된다.”

이름이 없다는 것은 곧 노예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이런 처지에 있던 여성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자아에 눈뜨게 되었고, 구속된 삶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게 되었으며, 새로운 삶을 개척할 수 있는 희망과 용기를 갖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의 시발점이 된 것은 세례를 받는 일이었다. 한국 여성들은 세례를 받고 이름을 얻음으로써 인간으로서의 기본권과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 평양에서 애국부인회를 창설했던 김세지는 이렇게 말한다: “오랫동안 이름 없이 살던 나는 주의 은혜를 힘입어 세례 받던 날로부터 여자 된 권리 중의 한 가지를 찾게 되었다.”

예수는 열여덟 해 동안이나 허리를 펴지 못하고 고생하던 여인의 병을 고쳐주면서 그녀를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부른다(눅 13:16). 이 호칭은 성경에서 이곳에만 유일하게 나오는데 매우 파격적인 발언이다. 여자가 사람대접을 받지 못하고 또 병자가 죄인 취급을 받던 시절에 예수는 병든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부른 것이다. 이 여인은 예수를 만남으로써 오랫동안 고통 받던 병으로부터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인간 대접을 받게 되었다. 오늘날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인권이 신장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부당하게 차별 받고 소외 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가 예수를 따라 이들을 다정하게 부르면서 따뜻한 손을 내민다면 이 세상은 더욱 따뜻해지고 살 맛 나게 될 것이다.

서 평

『신성과 다양성: 다종교 상황에서 기독교가 가야 할 길』

Marjorie Suchocki(2003), *Divinity and Diversity: A Christian Affirmation of Religious Pluralism*

정재현 옮김, 한울출판사, 2012.

종교적 인간에서 신앙하는 인간으로

전 명 주 (기독교학과 박사수료, 기독교교육학)

有朋, 自遠方來, 不亦樂乎!
(유붕, 자원방래, 불역열호)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몇 해 전 유행하던 초코과자의 광고 노래처럼 말도 꺼내지 않았는데 내 머릿속을 들어다 본 것처럼 비슷한 생각을 하는 이들을 가끔 마주칠 때가 있다. 기분 좋은 놀라움이며 큰 반가움이다. 얼마 전 만난 그 근사한 친구는 바로 마저리 수하키의 『신성과 다양성』이다. 조금이라도 다르다 싶으면 금방이라도 달려들어 공격할 자세를 취하거나, 바짝 긴장하여 경계의 끈을 풀지 못하는 속 좁은 범인(凡人)인 나와 다르게 수하키는 넓은 아량으로 따뜻하게 타인을 안아줄 방법을 일러준다. 그것도 짧고 쉽게.

이 책에서 수하키는 종교다원주의를 표방하며 존재하는 다양한 종교들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한다. 사실 종교다원주의라는 말 자체가 혹자에게는 너무 불경스럽고, 혹자에게는 오히려 너무 진부한 이야기로 여겨질 수도 있겠으나, 종교다원주의라는 개념 자체가 이미 다양하고 모호한 부분이 있어 한 가지로 결론 짓기에는 힘들다는 점을 새삼 강조해야 할 것이다. ‘다종교 상황에서 기독교가 가야 할 길’이라는

이 책의 부제에서 보여지듯이 이것은 다종교의 상황, 즉 당위적 주장으로서의 종교다원주의라기보다는 현실적, 현상학적으로 다종교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논의이다.

가톨릭에서는 일찍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5)에서 선언한 바, 비기독교인에게서 발견되는 옳고 성스러운 것은 어떤 것도 배척하지 않을 뿐더러 심지어 기독교인과 다른 규율을 지닌다 해도 참 진리일수도 있다고 하지 않았던가? 양심의 소리가 명하는 대로 하느님의 뜻을 좇는 칼 라너(Karl Rahner)의 ‘익명의 그리스도인’은 또 어떤가? 그런가 하면 비기독교인들은 지하철에서 ‘예수천국 불신지옥’을 외치는 이들과 석가탄신일에 축하의 메시지를 사찰에 보내는 기독교인들을 모두 하나의 종교인으로 취급한다. 과연 그럴까? 우리는 나와 다른 종교인들과 어떻게 관계해야 할까? 도대체 종교란 무엇인가?

『신성과 다양성』은 이같은 질문들에 답이 될 만한 실마리들을 제공한다. 오늘을 사는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종교에 갇히지 말고 보다 열리고 확장된 삶의 경계와 잣대로 세상을 바라보기를 권고한다. 수하키는 세계 위에 군림하는 방식이 아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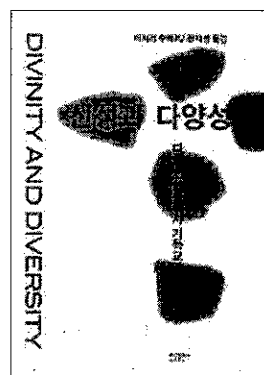
세계의 응답에 근거하여, 세계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의 일을 증언하는 역할로서 다원주의적 사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하느님은 우리의 종교뿐 아니라 다른 종교들과도 함께 일하시며 이런 대체할 수 없는 하느님의 다양성이 표현된 것이 바로 삼위일체라고 본다. 신적 사랑의 통일성을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게 하시는 하느님은 기독교 역시 자신의 경계를 넘어서야 한다고 이야기 하신다는 것이다. 경계를 허물어 낯선 타자를 우리의 울타리 안에 들이고 그들과 대화하며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야말로 우리 스스로 구원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것이며 은총임을 역설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녀는 기독교 안에서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발견해 보고자 한다.

각 장의 끝에 제시된 토론을 위한 질문들은 우리에게 더 깊은 통찰의 기회를 제공하는 좋은 자료가 되며 더불어 책 말미에 수록된 역자의 논문 역시 이 책을 읽는 이들의 이해를 돕는데 큰 도움이 된다. 부록으로 담긴 정재현 교수의 글은 수하키의 주제를 자신만의 언어로 차분히 되새김질하면서 과연 종교가 무엇이며, 나와 다른 종교들과 어떻게 관계할 것인가에 대해 차지있고 설득력 있게 써내려간다. 역자의 글은 때로는 수하키보다도 더 간명하고 확실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편협한 종교인을 넘어 진정한 신앙인이 될 것을 요청한다.

산다는 것은 '다름'을 견뎌내는 일이다. 나와 '갈지 않음'에 설득시키려 노력하고, 때론 싸우고 포기하며 그렇게 우리는 매일을 견디어낸다. 처음부터 인간이란 존재는 각자가 지닌 이 '다름' 때문에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인간이란 각 개체가 지닌 수많은 다른 조건들로 인해 같은 대상과 사안에 대해서도 달리 이해하고 다르게 행동한다. 당연히 인간에게 객관성이란 처음부터 지니기 쉬운 것이 아니었다. 아니 인간이 애당초 객관적일 수 있기는 한가? 이 나름대로 지닌 저마다의 조건, 즉 독특한 해석의 틀을 가진 덕에 우리는 같

은 세상 안에 살면서도 사실은 저마다의 서로 다른 세상을 살아낸다. 이것이 믿음에 대한 문제라고 달라질 리 없고, 종교 자체의 격의성과 종교인 안에서의 증충성이란 결과도 그리 놀랍지 않다. 오히려 자신만의 잣대로 상대를 파악해버리는 우리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또 다른 누군가를 '갈음'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더욱 더 어불성설인 듯하다. 이제 우리는 '다름'을 견디는 것에서 나아가 '왜' 다를까에 대한 관심과 이해 그리고 인정의 노력이 필요하다. 무작정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내지는 것이다. 마저리 수하키의 말처럼 다양성 없이 존재하는 세계는 없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할 세상에서 '다름'이란 더 이상 생경하고 두려운 대상이 아니라 대화하고 소통해야 할 대상이다. '다름'에 대한 나의 해석의 폭이 넓어지는 만큼 더 넓고 다양한 세상을 만날 것이며, 그곳에서 우리는 단순히 한 곳에 매몰된 종교인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인으로 우리를 다독일 수 있는 더 많은 경험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왜' 다른가에 대한 열린 고민과 진지한 성찰은 나와 '다름'을 만나고 대화하게 하는 가장 정직하고도 올바른 길로 안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2012년 12월호 『기독교사상』에 게재된 글을 수정, 요약한 것입니다)



가을학술강연회 참관기

이보영 박사(Pacific School of Religion 교수)의
“Asian Feminist Pedagogy” 강연을 듣고

최 지 윤 (기독교학과 석사수료, 기독교윤리학)

지난 가을 기독교학과 학부생들과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Asian Feminist Pedagogy” 를 주제로 이보영 박사의 강연이 있었다. 이보영 박사는 버클리에 있는 태평양 신학대학원(Pacific School of Religion)의 교수로서 2002년부터 연합신학대학원(GTU) 내 130여명의 교수 중 유일한 동양계 여성으로 기독교 교육과목을 담당해왔다. 그녀의 강의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타종교, 타학문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하면서도 창의적인 수업으로 학생들의 높은 호응을 받으며 2012년도에는 연합신학대학원(GTU)의 ‘살로 우수 교수상’(Sarlo Excellence in Teaching Award)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보영 박사는 이번 강연에서 아시아 여성들의 교육방법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를 고찰함으로써 앞으로 아시아 여성신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몇 년 전 북미에서 활동하는 아시아 여성신학자들은 다양한 경험과 문화에서 형성된 각기 다른 신학적인 목소리들을 담은 *Off the Menu*라는 책을 발간했다. 이보영 박사는 특별히 이 책에서 “손맛”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예로 아시아 여성들의 교육방법에 대해 말했다. 오래 전 유학시절, 한국의 요리책은 계량의 개념이 정확하지 않아 도무지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없었기에 그녀는 어머니에게 연락을 했다. 마침내 어머니가 가르쳐주신 요리 방법을 들으며 요리에

성공할 수 있었다. 어머니의 요리교육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손맛”이었다. 요리하는 사람의 마음이 차분하고 평안하여 평정심을 유지하게 되면 손맛 즉, 적당한 힘과 온도로 인해 완벽한 요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어머니의 요리법은 딸에게 전해지고 딸의 고유한 손맛은 또 그녀만의 요리법을 형성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교과서에서는 배울 수 없는 교육방법으로 삶의 경험에서 나온 지혜로 이루어진다. 실제로 많은 아시아 여성들의 교육방법은 지혜교육이었다. 그리고 아시아 여성들의 지혜교육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첫째, 전인적이고 총체적이다. 단순한 지식의 습득이 아니라 삶의 지혜로 가르치고 배우기 때문에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 전인적이고 총체적인 교육은 지식 뿐 아니라 더 큰 것을 기억하게 된다. 예를 들어 우리가 밥상을 마주할 때 객관적인 데이터로 음식의 맛만 기억하게 되기보다는, 함께 밥상에 둘러 앉아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 때의 분위기와 느낌을 함께 익히게 된다. 사실 교육에서 소외당했던 많은 아시아 여성들의 자녀 교육방법은 지식적인 측면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시아 여성신학은 지혜를 통해 자연스럽게 가르치는 것으로 자녀들은 공동체의 사랑, 이야기, 분위기를 함께 기억하게 된다. 지식을 주입하기보다는 본래 있던 능력을 계발하도록 돕는 것이다.

둘째, 공동체적이다. 개개인으로서 힘이 없는 여성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공동체의 연대를 통해 살아남을 수 있었다. 아시아 여성들의 교육방법은 모든 과정과 목적에서 자연스럽게 협력과 연대를 통해 이루어지는 공동체적인 특징을 지닌다.

셋째, 존재론적이다. 지혜는 삶의 경험을 소화하고 해석하는 것이다. 누군가의 손맛은 그 사람의 존재를 수반하게 된다. 아직도 많은 아시아 여성들은 억압으로 고통받고 있으면서 중요한 존재로 대우받지 못하고 스스로를 중요한 존재로 여기지도 못한다. 따라서 아시아 여성들은 다른 누군가의 평가와 판단에 의해서 자신들이 정의되는 것을 거부하고 우리 스스로가 누구인지 정의해야 한다. 아시아 여성들의 교육은 이러한 존재론적인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정치적이다. 아시아 여성들의 정의를 구현하고 그들의 존재감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사회정치적인 시스템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 따라서 억압적인 사회구조의 변화를 위한 작업들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현존하는 불공평한 구조 자체를 바꾸지 않고는 존재론적, 전인적 교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국 내의 아시아 여성 신학자들은 신학자이면서 동시에 행동가로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아직도 아시아 여성신학이 넘어야 할 산은 많다. 그 중의 하나가 아시아 여성신학 내에서의 계급 차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백인 여성들이 넘어야 할 산이 성차별주

의라면, 아시아 여성들은 그에 더해 인종주의와 제국주의와도 싸워야 한다. 뿐만 아니라 아시아 여성신학이라는 같은 카테고리 안에서도 아시아 여성들은 서로 다른 문화와 환경 안에서 자라왔기에 문제 해결 방식의 출발 자체가 완전히 다를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여성신학은 같은 여성, 같은 아시아인이라는 거대한 공통분모가 있기에 연합할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한다. 물론 아시아 여성신학이 진정으로 세계에 공헌하기 위해서는 어느 경우에도 다른 공동체의 희생 위에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타종교와 타학문까지 포괄하여 인종과 문화적 다양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겠다.

이보영 박사의 강연을 통해 필자는 여성적 교육방법에 대해 다시금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지식 중심적인 학습체계 안에서만 살아왔던 우리들에게 아시아 여성들의 교육방법은 체계적이지도 않고 객관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 삶에서 실질적으로 여성들의 교육방법이 얼마나 지혜롭고 전인적인 교육방법이었는가를 깨닫게 해 주었다. 이화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지만 아시아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무지한 우리에게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좋은 강연을 해주신 이보영 박사님께 다시금 감사드린다.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다면 현장에서 활동하는 여성실천가들의 목소리를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들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콜로키움 참관기

개혁 그리고 신학

제 4회 이화신학공동체 콜로키움 강연을 듣고

이 은 주 (제14대 신학대학원우회장)

다소 지칠 법도 한 오후 시간의 나른함을 뒤로 하고 하나 둘씩 모여든 소예배실은 여느 때와는 다르게 학문탐구에 대한 열정과 기대감으로 가득 한 것처럼 보였다.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명확한 백은미 교수님의 진행으로 시작된 콜로키움은 박경미 교수님의 <교회, 권력, 종말론적 상상력>이라는 주제 강연으로부터 시작되어 이윤경 교수님의 <느헤미야, 산발랏, 도비야의 관계를 통해서 본 느헤미야의 개혁>이라는 강연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많은 학부생들과 대학원생들이 두 교수님의 발표에 학문적 호기심과 감탄을 드러내었으며,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번 기회가 신학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먼저, “한때 교회는 이 땅의 가진 것 없고 기댈 곳 없던 사람들이 의지하던 장소였다. 그래서 교회가 아무리 욕을 먹고, 또 내 입으로 교회를 비난할 때가 많아도 마음 한구석에는 이래도 되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 도대체 교회는 어찌다 이렇게 되어버렸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박 교수님의 교회에 대한 기억의 이야기는 강연을 듣는 나와 연배가 비슷한 이들에게는 아련한 기억 저편의 아름다웠던 교회의 풍경들이 살아나 마치 그 현장을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했고 한편, 나이 어린 친구들에게는 그런 시절도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도 갖게 하면서도 그의 이야기에 빠져들게 만들었다. 박 교수님은 타고난 이야기꾼인 것 같다. 그 분의 이야기는 거침없이 저절로 이해가

가는 쉬운 글쓰기로 우리들을 자신의 편에서 있게 만들었다. 구구절절 맞는 말씀이었다.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사회의 권력과 결탁하여 “이웃이 없는, 이웃이 되기를 포기한 제도로서의 교회로, 또 하나의 이익집단으로 변질되었는가 물으면서 이는 이웃이 없는 사회에서 파생한 일종의 병리적 현상으로 존재한다”고 박교수님은 이야기했다. 변해도 너무 변해버린 현실과 권력화된 교회는 우리에게 종말론적 상상력을 빼앗아갔지만 결국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상상력이라고 단언한다. 종말론적 상상력은 바울이 소망했던 장차 영광 가운데 부활한 하느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이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울에게 의미하는 바였을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끊임없이 그에게 세계에 대한 종말론적 상상력(믿음에 대한 세속적인 언어)을 불어넣어주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나는 여기서 믿음을 ‘상상력’이라는 단어로 치환한 것에 감탄했다. 어느 누가 믿음을 상상력이라는 말로 쓸 생각을 할까? 여기에서 다시 한 번 이대(梨大)로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이어진 <느헤미야, 산발랏, 도비야의 관계를 통해서 본 느헤미야의 개혁>이라는 주제의 이윤경 교수님의 강연은 앞서 교회의 권력과 종말론적 상상력에 일침을 가하신 박경미 교수님의 강연에 또 다른 신선한 충격을 전해주고 있었다. 정치적, 경제적 측면 모두 주변 경쟁 속주들과 비교할 때 열악한 상황에서 유대의 총독으로 임명되었던 느헤

미아는 페르시아가 후원하는 성벽공사를 통하여 자신을 따르는 극소수의 귀환자 그룹을 토대로 하는 유다 중심의 팔레스타인 정치개편을 실현하고자 했다. 그는 사마리아계 유대인들과 암몬계 유대인들을 철저하게 배제시켰는데, 이러한 분리·분열 정책이 용인될 수 있었던 이유는 페르시아의 속주에 대한 갈등과 분열을 통한 충성경쟁을 유도하는 파스 페르시카(Pax-Persica) 정책과 맞아 떨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의 '유대중심주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페르시아 시대로부터 로마시대까지, 산발랏과 도비야 가문의 후속사를 살펴보면, 사마리아와 암몬은 유대와 분리되어 독립 정치구성체로 존속하였다. 그 결과 유대의 영토와 정치권력은 오히려 예루살렘과 주변지역으로 축소되었다.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하는 것일까? 분명 가장 많은 책임을 져야할 사람은 유다 총독 느헤미야이다. 따라서 느헤미야의 개혁은 유다 재건설이라는 정치적 야망을 실현시키기 위해 유대 민족주의를 이용했고, 결과론적으로 볼 때 오히려 유대와 사마리아의 분열을 초래한 단초를 제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회개혁에 목말라하는 한국 교회는 성서적 개혁의 모델로서 느헤미야의 개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즉 느헤미야 개혁은 "바벨론 포로기간 동안 유다 땅에 '남아 있던 자들'과 '귀환한 자들' 사이의 갈등과 불신의 벽을 허물고 화합과 신뢰의 벽돌들을 쌓아 올렸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평가가 과연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는가? 그렇지 않다. 느헤미야의 개혁에는 적대자들이 존재하였으며, 느헤미야는 화합이 아닌 분리로 개혁을 마무리 지었다는 것이다. 사실 교회적 평가에 익숙해진 나로서는 이러한 평가에 대해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이는 이전에는 들어본 적이 없는 새로운 '느헤미야 개혁론'이었기 때문이다.

느헤미야는 산발랏과 도비야를 이방인이요,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자들로 표현한 것과는 달리 이윤경 교수님은 여러 문헌들과 자료들을 근거로 그들이 야웨주의자이자 유대인들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된 자들로서 성전 건축에 많은 도움을 주었을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강연과 함께 고대 문헌에 대한 시청각 자료들을 살펴 보면서 젊은 교수님의 역사를 보는 또 다른 통찰력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구약에 별 관심이 없었던 나에게 특별히 신구약 중간사에 대한 연구는 충분히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이번 콜로키움이 신학을 하는 학생들에게 성서연구의 새로운 학구열을 고취시키는 환기(喚起)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된다.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그대로 수용하고 전달하는 것이 학문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과 창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관점을 달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니 벌써 다음 콜로키움이 기대된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좋은 강연 준비로 우리들에게 앞의 기쁨을 깨닫게 해주신 교수님들께 감사드리는데 바이다.

◆ 포토앨범 I ◆



여성신학 석학과의 대화 (2012. 9. 24)
필리스 트리블 교수와 이경숙 교수의 강연



가을 학술세미나 (2012. 11. 7)
강연 중인 이보영 교수



학술세미나에 집중하는 기독교학과 학생들



이화신학공동체 콜로키움 (2012. 11. 19)
강연 중인 박경미 교수



이화신학공동체 콜로키움(2012. 11. 19)
강연 중인 이윤경 교수

에세이

이화목회상담아카데미의 첫 학기를 마치고……

이 애 영 (이화목회상담아카데미 11기)

꼭 한번은 공부해보고 싶다는 마음만 가지고, 그야말로 백지상태로 시작하여 이화목회상담아카데미의 한 학기를 보냈다. 평소 사람들과 일대일로 이야기 나누는 걸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 서로의 아픔을 나누게 되기도 하고... 그런데 상대방의 아픈 마음을 위로 할 때마다 반복되는 내 안의 갈등이 있었다. 상대를 위로한다고는 하나 너무나 편협하고 제한적인 내 생각을 중언부언 쏟아내게 되고, 그러다 어느 순간 내 잘난 척으로 결론이 나기 일쑤인 것이다. 위로는커녕 상대의 상처 위에 소금을 뿌리는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더 많이 해 온 것이다. 그럴 때마다 들었던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 대해 공부를 해야겠다. 그러면 누군가를 지금보다 더 잘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시작한 목회 상담공부. 처음엔 도무지와 닿지 않는 어려운 학문 용어들과 주제들에 어리둥절했고, ‘내가 과연 이 자리에 있어도 되는가, 이 길을 계속 갈 수 있을까’, 지레 겁부터 먹었던 기억이 난다. 그러나 수업의 회를 거듭할수록 수업 내내 나를 비추는 거울을 보는 느낌이었다. 특히 내담자의 위치에 더 가까이 있는 내 자신을 직면하게 되면서, 많은 부분 치유되지 않은 상처투성이의 자신의 모습을 만나는 것이, 마음 무겁고 결코 쉽지는 않았지만, 공부 시작하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과 함께, 처음에 갖고 있던 ‘공부를 하면 누군가를 잘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선부른 생각이 얼마나 교만한 마음이었는지 웃음이 나오기도 했다.

중년을 넘어 장년을 향해 가는 내 나이가 무색할 만큼, 내 자신을 비롯해 주변 가까운 이들에 대해 아는 것이 진정 아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과 함께, 그동안 내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독선적이고 미숙한 생각들을 갖고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왔는가를 곱씹게 되는 시간들이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드는 원인이 유아가 이전에 대부분 결정되는데, 그것이 결정 되는 곳이 바로 가정이었다. 따라서 한 개인의 정신적, 육적인 질병 또는 병리적 문제는 가족 체계와의 관계에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우리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이 먼 곳 어딘가가 아니라, 우리가 몸 담고 있는, 가장 가까운 가정이라는 곳이기 때문에 오히려 숙제같은 무거운 마음은 있었지만 인간관계와 나 자신의 변화에 대한 희망도 보게 되었다.

상담에 관한 정의는 다양한 측면에서 내려지곤 한다. 얼마 전 “청소년 우울”에 관한 공개 워크숍에서 강의하신 교수님 말씀이 생각난다. 상담은 “반추를 반성으로 돌려주며, 그 과정을 통해 스스로를 알아가기까지의 막막함을 같이 전여주는 것이라고...”

봄학기를 앞두고, 나를 변화시켜줄 앞으로의 수업과정이 기대된다. 개인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자의든 타의든 이 공부를 할 기회가 주어져, 그들 개인의 삶이 현재의 상황을 뛰어 넘는 풍요를 함께 누리게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그리고 이 공부를 하고 몇 년이 흐른 뒤에, 나는 이 공간에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 포토앨범 II ◆

이화목회상담아카데미의 활동들



2012년 이화목회상담아카데미 가을학기
개강축하의 말씀을 전하는 정희성 교수



2012년 이화목회상담아카데미
가을학기 개강예배를 드리며



2012년 이화목회상담아카데미
가을학기 졸업생들과 선생님이 함께



2012년 이화목회상담아카데미
가을학기 수료예배를 마치고



교내 소식

■ 이화여성신학연구소

• 학술강연회

강 사: 김나미 박사(Spelman College 교수,
기독교학과 91년 졸업)

일 사: 2013년 5월 13일(월) 오전 11시

장 소: 인문관 111호

• 박사후 세미나

일 사: 2013년 3월 16일(토) 매월 1회

장 소: 대강당 204호

• 이화목회상담아카데미 봄학기 개강

일 사: 2013년 3월 11일~5월 29일, 매주 월요일

장 소: 이화여대 대학교회 106호

문 약: 010-9830-9834, www.epcc.or.kr

■ 기독교학과

• 기독교학과 개강예배

일 사: 2013년 3월 12(화) 오후 5시 30분

장 소: 대학교회 소예배실

• 기독교학과 학생 MT

일 사: 2013년 3월 29일(금)~30일(토)

장 소: 용인 흙브릿지

■ 신학대학원

• 신학대학원 개강예배

일 사: 2013년 3월 12(화) 오후 5시 30분

장 소: 대학교회 소예배실

• 신학대학원 공동체 훈련

일 사: 2013년 3월 29일(금)~30일(토)

장 소: 용인 흙브릿지

■ 교수 동정

• 정용석 교수

- 보직 발령: 신학대학원장

• 양명수 교수

- 보직 발령: 교목실장



교외 소식

■ 한국여신학자협의회

• 제 10차 WCC 영문 저술 모임

일 사: 2013년 매월 1회

장 소: 여신협 사무실(영등포 여성미래센터)

문 약: 여신협 사무국(365-4276)

• 정기학술대회

일 사: 2013년 5월 11일(토) 오전 10시 30분

장 소: 이화여자대학교 대학교회 소예배실

주 제: 해외여성신학의 최근 연구 동향

■ 한국여성신학회

• 신진학자 학술세미나

일 사: 2013년 3월 16일(토) 오전 10시 30분

장 소: 이화여자대학교 대학교회 소예배실

발 표: 강해정(이대), 이유미(연대), 문우일(평택대)

■ 한국여성단체연합

•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대회 및 토크콘서트

일 사: 2013년 3월 7일(목)~8일(금)

장 소: 서울시장 신청사 8층 다목적홀

주 최: 한국여성단체연합

문 약: 여성단체연합(313-1632)

Feminist Theology News

Table of Contents

■ Foreword	Yong Seok Chung	1
■ Book Review		
Divinity and Diversity: A Christian Affirmation of Religious Pluralism		
.....	Myung Ju Jeon	2
■ Lecture Review I		
Asian Feminist Pedagogy		
.....	Ji Yun Choi	4
■ Lecture Review II		
Colloquium of Ewha Theological Community		
.....	Eun Ju Lee	6
■ Photos I		8
■ Essay		
My First Semester at Ewha Pastoral Counseling Center		
.....	Ae Young Lee	9
■ Photos II		10
■ News		11



Ewha Institute for Women's Theological Studies

52, Ewhayeodae-gil Seodaemun-ku, Seoul, Korea 120-750

Tel. 82-2-3277-3278 Fax. 82-2-312-2062

Homepage: <http://home.ewha.ac.kr/eiwt>

E-mail: E600067@ewha.ac.kr